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청춘'을 노래했다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7년 5월 4일)

“안재욱 가창력 좀 뒤지지만”
허수경 라디오 발언 입방아

세 번째 음반 '화양연화 파트1' 발표한
방탄소년단

“데뷔 3년차...아직 이루어놓은게 없다
위태롭고 불안한 청춘 테마로 곡 작업
우리 위치 알리고 대중 인지도 높일것”

“화양연화” 꽃처럼 아름다운 순간을 표현한
말이다. 이웃 남녀간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그린
유명한 홍콩 영화가 먼저 떠오르는 이 제목을
7인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방탄소년단·
슈가·진·제이홉·지민·뷔·정국)이 세 번째
음반 타이틀로 삼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맞고 싶어서”다.

데뷔한지 정확히 계산하면 1년10개월 밖에
안됐지만, 햇수로는 3년차다. 마음이 더 조급
해진다. 인지도에 비해 딱히 이루어놓은 것이
아직 없다.

“대중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 같다. 확실하게
우리 위치를 알리고 싶고, 대중 인지도도 높
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엔 뭘가를 보여줘야
한다. 사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부
족했다. 그동안 주위에서 ‘1위라하’거나,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
가 더 답답했다.”(정국)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만든 음반이라 이들은 그룹 색깔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바꿨다.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인 만큼 ‘방탄소년단
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싶다. 부정적인 변
화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한 게 아니다. 강한
눈빛, 진한 아이라인, 금목걸이, 가죽 재킷 등
을 벗어버리고 자연스럽게 표현했다.”(슈가)

불안한 미래를 달랠거는 20대 초반의 청년
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고민한 결과물이다. 앞
서 내놓은 음반을 통해 당시 이들에 맞는 ‘학교’



7인조 방탄소년단이 세 번째 음반 '화양연화'를 발표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맞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이 담긴 제목이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와 관련된 노래를 했다면, 이번엔 ‘청춘’이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청춘인 것
같았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떠올랐다. 청
춘으로 할 이야기가 많지 않다. ‘화양연화 파트
1’과 ‘파트2’로 나눠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진·뷔)

“화양연화 파트1”은 이틀치러 위태롭고 불
안한 청춘이 테마다. 타이틀곡 ‘아이 니드 유’
는 청춘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노래고, 끝나는 사랑을 붙잡으려는 애

타는 마음이 담겨있다. 멤버 원원이 작사, 작
곡에 참여하며 공을 들었다.
“대중이 과연 우리 음악을 들을 것이냐, 이
제 그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거다. 그동안
음악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게 만든
곡이지, 대중을 크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아이 니드 유’는 청춘의 입장에서 돌아가 들
고 싶은 곡을 생각해서 만들었다.”(제이홉)
반응은 나쁘지 않다. ‘아이 니드 유’ 뮤직비
디오는 공개 16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고, 각종 음원사이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19급
버전과 15세 버전으로 나뉘어 소녀팬과 누나
팬들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1위다. 데뷔했을 때 신인상
을 목표로 달려갔는데, 이루어졌다. 과유불급
이라는 말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면 거기
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 목표
에 차근차근 다가가고 싶다.”(지민·정국)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최근 개그맨 장동민과
유세윤, 유상무 등 이른바
‘옹달샘’ 멤버들의 과거 여
성비하 발언이 논란을 빚
고 있다. 장동민은 삼풍백
화점 참사 생존자를 모욕
했다는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연예인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 그 위상만큼이나
대중에게 예민하게 받
아들여지기 마련이다. 세
개그맨은 사회적 물의에
도 여전히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과정
이 썩 개운치 않은 것도 사
실이다.

1997년 오늘, MBC FM ‘정오의 희망곡’의 진행
자 허수경(사진)이 연기자 안재욱에 대해 한 마디
했다. 안재욱은 MBC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로
일약 톱스타의 자리에 올라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 직후 앨범 ‘포에버’를 내고 가수로 데뷔했다. 허
수경은 이를 두고 “가창력은 좀 뒤지지만 드라마
의 인기에 힘입어 음반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안재욱의 팬들은 발끈했다. 특히 당시 많은
이들의 소용 공간으로 통했던 PC통신상에서는 허
수경의 발언을 둘러싼 감정을 많이 이어졌다. 물론
허수경을 비난하는 축이 많았다.

하지만 허수경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일주
일 뒤 “방송하기 참 힘들다”며 자신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안재욱 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PC통신
상상 여론은 더욱 끓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허수경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는 글이 올랐다. 그러
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허수경은 “그런 일이 없
다”면서 “더 이상 PC통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다.

사실 허수경의 발언은 안재욱 팬들의 지적처럼
음악평론가로서 내놓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의 입장에서 나름 기준으
로서 내놓을 수도 있는 말이었다. 물론 안재욱의
인기가 워낙 치솟은 상황에서 단지 그의 팬덤이 이
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임은 당연했는지 모
른다.

허수경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다. 1989년 2월
MBC 전문MC 공개모집을 통해 방송에 데뷔한 허
수경은 1995년 MBC가 1994년 한 해 연예인 출연
료를 집계한 결과 1억5000만원을 받으며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 ‘아침만들기’ ‘지구
가족통신’ ‘선배 토요일이 좋다’ 등 TV프로그램과
FM ‘정오의 희망곡’ 등을 진행했지만 겹치기 출연
등으로 인한 과로 때문에 방송활동을 잠시 중단할
정도였다. 이듬해에는 MBC가 시청자 1200명을 대
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진행자
로 뽑히기도 했다.

윤여주 기자 tadada@donga.com

유준상 “국민 남편보다 국민 밍상이 더 낫네요”

풍문으로 들었소 한성호역 새 전성기
다양한 분야서 광고 제의...인기 실감

연기자 유준상(사진)이 ‘국민 밍상’으로 떠
올랐지만, 인기는 상상 이상이다.

현재 방송중인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법조 명문가 출신의 한성호 역을
맡은 그가 광고계에서 크게 주목받으며 새로
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극중 허례허식과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인
물을 연기해 시청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지
만 오히려 그동안의 반듯한 모습보다 더 جذاب

하다는 평가가 더해지면서 대중 결으로 더 가
까이 다가갔다. 또 매순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탁월한 언변을 자랑하면서도 귀여울 정
도로 허당스러운 매력이 웃음을 안긴다. 이
런 모습 등으로 그는 현재 금융, 통신사, 음
료, 건강 보조제,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광고모델 제의를 받으며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광고계와 소속사 측에 따르면 유준상은
2012년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통해
‘국민 남편’의 이미지로 각종 광고에서 모델
로 활약할 당시보다 ‘국민 밍상’ 이미지로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또 드라마가 끝나지
도 않은 상태에서 뮤지
컬과 영화, 드라마 등
에서 출연제의를 받고
있다.
유준상은 3월 소속사
를 통해 “복잡한 캐릭
터를 처음 연기하는 것
이라 고민이 많았지만,
코미디와 정극 연기
속에서 선보이는 입체
적인 캐릭터를 좋게 봐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준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드라마가 끝나는 대로
차기작 등을 결정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빅 마우스

● “친해지고 싶지만 기회가 없다. 형! 친해져요.”
(연기자 여진구) 2일 KBS 2TV ‘연예가 중계’에
출연해, 아역 연기자 출신인 유승호가 “여진구
가 대단해 보인다”고 했던 말을 전제 듣고.

● “말실수 했다. 인정하고 사과한다. (에프엑스
엠비) KBS 2TV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가수
헨리를 향해 “오빠가 쓰레기인 걸 사람들이
안다”고 했던 말이 논란을 빚자, 2일 SNS를
통해 사과하며.

● “(에쁘고 똑똑하니가 센나지?) (누리꾼 nice**
**) 걸그룹 EXID 하나의 아이큐가 ‘145’라고
소개한 기사의 댓글. 하나가 자신의 아이큐를
자랑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많은 것을 본 한
누리꾼의 유쾌한 반응.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www.PLX24.com

가능성 프리미엄 라운드티셔츠 5종 39,800원

통기성, 신축성, 활동성 및 흡수·속건 기능을 갖춘 고기능성 소재

네이비



블랙



오렌지



화이트



블루



반팔1장, 긴팔4장 한꺼번에 39,800원






100% 국내 생산

사이즈 95, 100, 105 티셔츠5종 ₩149,000 → **₩3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플룩스(이상제)

등산·사이클·조깅·낚시 등 여름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한 최적의 선택!

가능성 긴팔티셔츠 쿨크, 등산, 사이클, 조깅, 낚시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능성 프리미엄 5종세트 라운드 티셔츠는 흡수, 속건 활성성을 극대화하였으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핏감이 신체를 더욱 돋보이게 헤드릴 뿐 아니라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몸에 달라붙지 않아 등산, 골프, 사이클, 조깅 및 일상복으로 쾌적하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 고기능성 소재로 고도의 통기성이 우수하며 빠르게 건조되어 항상 끈적임 없이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양방향 탄성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운동 시에도 편안한 착용감 및 활동성을 보장한다. 뛰어난 신축성을 자랑하는 고급원단 소재 사용으로 신체 온도를 유지시켜 드러머 원단의 흡수, 속건 기능이 있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준다.

땀은 내주고 공기를 마시는 흡한·속건성 티셔츠, 자외선 차단 및 세균 및 각종 유해균 격퇴 끝!

가능성 냉감티셔츠는 강렬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 수분을 최대한 빨리 밖으로 배출하고, 무더운 여름철 땀·수분으로 발생하는 체온 상승효과를 억제함으로써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항상 끈적임 없이 쾌적함을 유지시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세탁시에도 건조시간을 최소화하여 세탁 후 바로 착용이 가능한 정도의 건조성이 좋고 오염 물질도 간단한 세척으로 제거가 쉽다. 마치 안 입은 듯한 착용감과 볼에 들 정도로 가벼운 초경량 소재 사용으로 입는 순간부터 시원한 착용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100% 국내생산으로 품질이 뛰어나며 초경량 소재 사용으로 입는 순간부터 시원한 착용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제품 불만족시 일주일 이내 100%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